

“대승불교, 실크로드 타고 역수출 됐다”

금강대·섬서사범대 28일 공동국제학술대회서 대거 주장

흔히 대승불교는 인도에서 발원해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으로, 또 한국으로 전래했다고 여겨져왔다. 이런 학계의 인식을 뒤집는 연구논문이 국제학술회의에서 대거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 금강대와 중국 섬서사범대가 공동 개최한 ‘종교와 민족, 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대승불교가 중국에서 정립됐으며,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힘입어 간다라지역과 인도지역에도 역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학계가 최근 주장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실크로드 지역 영향에까지 향후 연구 확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지연 금강대 HK교수는 ‘고대 실크로드 경제권의 변화와 대승불교의 발전’에서 실크로드 지역이 중국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았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꽃을 피운 대승불교가 역으로 실크로드에 전래됐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흔히 대승불교는 서북인도 혹은 인도 내부에서 흥기를 거쳤다고 보지만 당시에는 소승교단이 우세해 입지를 다지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소승 내부에서 ‘대승’으로 이르는 의식이 있었는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대승불교가 발전해 동아시아 전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

실크로드의 상호 교류성 재조명

정치경제의 종교 전래 영향 분석

韓 한지연 “중국 정치경제 확장 영향”

印 나심 “간다라 지역서 증거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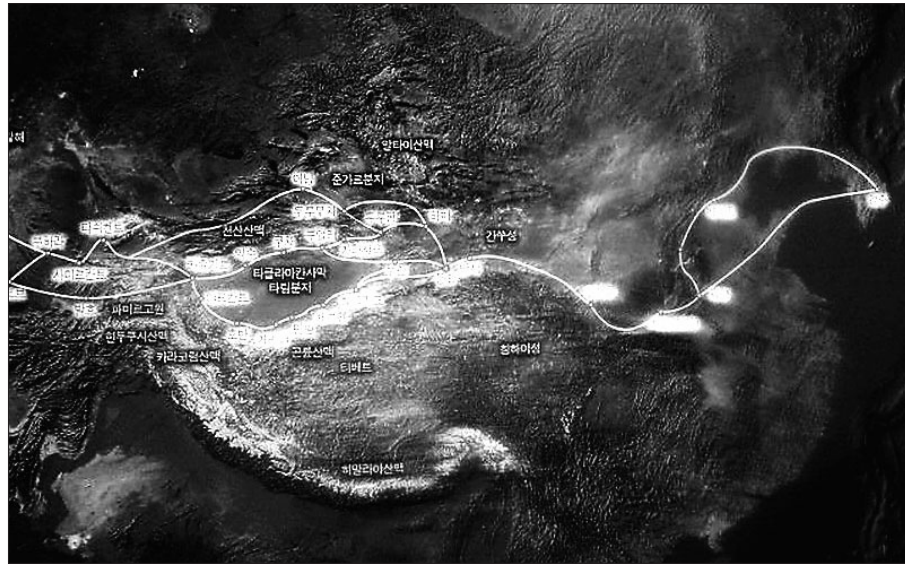
中 왕신 “서역·중국 승려 상호 무역”

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요소”라며 “중국에 불교를 전해준 전법승과 그들의 사상전환, 더 나아가 귀국 후의 활동이 서역 및 서북인도 각 국의 불교에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그 결과가 대승불교라는 범주의식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서역 출신 승려들의 중국 내 활동과 귀국 후 활동을 대승불교의 발전과 관련하여 검토했다.

한 교수는 “오늘날 실크로드로 칭하는 서역은 인도왕조의 영향권에서 점차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권으로 속하게 되는데 이로인한 상호교류로 중국에서 확고히 자리한 대승불교가 역수출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했다.

나심 페샤와르데 교수는 ‘9세기 이전 간다라와 중국의 상호 문화 교류 - 새로운 고고학적 근거들’에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실크로드 문화교류 디지털 조감도. 한국학계는 실크로드의 중점이 경주이며 단순한 불교전래에 그치지 않고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 등을 통해 세계문화 교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했다.

나심 교수는 간다라 지역의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에서 중국이 간다라 지역에 미친 영향이 컸음을 논증했다. 나심 교수는 “문화는 상호교환되는 것으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및 특정 불교에 대한 선호가 간다라 불교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며 “여행객들의 진출, 비문의 기록, 고전학(古錢學)적 증거 등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심 교수는 최근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발견된 비문과 주화에 대해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증거”라며 “중국의 영향

이 간다라 불교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왕신 섬서사범대 서부변강연구원 원장은 “한당시기의 서역불교와 그 동전경로”에서 당시 승려들이 흥발활동과 함께 각자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활동을 벌였음을 주장했다.

왕신 원장은 “서역승려들과 중국 승려들은 특수한 불교전파 과정으로 상업무역활동, 혹은 군사정벌과 연계됐다”며 “이는 불교가 정치적 목적의 매개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한국 종교지형 변화...불교, 무엇해야 하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과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4월 16일 오후 2시 ‘한국 종교지형의 변화와 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인의 종교’를 제작한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설명하며, 박수호 중앙승가대 강사, 박희승 백련불교문화재단 연구실장 등이 참여한다. 이어 30년간 한국 종교지형의 변화와

종교성향의 변화에 따른 불교의 대응,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과 불교,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주요현안, 미래 불교 등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자료는 김승철 중앙승가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박경준 동국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고명석 포교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수호 중앙승가대 강사, 박희승 백련불교문화재단 연구실장 등이 참여한다. (02)2011-1911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무관의 국보’ 보물지정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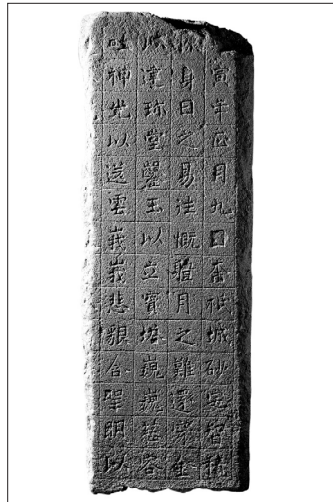
국립박물관 등 국가기관 소장 문화재 우선 대상으로

‘무관(無冠)의 국보’로 불리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 국립박물관 소장품을 국가문화재로 등록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민간이 소유한 유물을 위주로 국가문화재를 지정해 왔지만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에 따라 2014년 전국 국립박물관이 보유한 유물 65건 181점을 국가문화재로 우선 지정하고 이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가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문화재청은 3월 24일 이성계가 조선건국전 발원해 봉안했다는 금강산 월출봉 출토 이성계발원사리기·회귀 고려나한도 6점·12세기 제작 은제 도금 탁잔·최고(最古)의 합동 6년명 금고(국립중앙박물관), 금령총 금제허리띠(국립경주박물관), 무령왕릉 금동제신발 등 일괄출토품(국립공주박물관) 등을 상반기 중으로 국가문화재로 승격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불교조각 중 국립중앙박물관 불상인 금동관음보살입상, 금동대세지보살입상 등의 금동아미타삼존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양 기관 협약에 따라 2014년 12월 경주 월지(안압지) 출토 금동초심지가지(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백제 의자왕 때 대좌평을 지낸 사택지적이 불당과 탑을 건



무관의 국보였다가 2014년 보물로 지정된 사택지적비

립하면서 세운 부여 사택지적비(국립부여박물관)가 각각 보물로 등재됐다.

황룡사 9층목탑 금동 철주본기(국립경주박물관), 원주 학생동 철조약사여래좌상(국립춘천박물관), 전(傳)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9건도 보물 등록이 예고된 상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약정된 181점 모두를 올해 내 조사해 하반기 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보물 예고를 마칠 것”이라며 “내년부터 중장기 과제로 매년 최대 35점까지 지속적으로 등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목재 정보공유 ‘우드옥션’ 새 단장

문화재청은 국내 최대 특수목 취급 공공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버 거래장터인 우드옥션(www.woodauction.kr)이 개편 오픈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우드옥션에서는 문화재수리용 특대재(特大材)를 비롯한 다양한 특수목 목재의 공급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판매자와 수요자 간 거래정보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전통 건축물 등지에 소요되는 문화재수

리용 목재로는 국내산 소나무(육송)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격이 큰 지름 45cm 이상 대경목(大莖木)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외국산 목재를 쓰는 일이 많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목재 정책 추진기관인 산림청, 목재 생산·공급 전문 공공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우드옥션을 전면 개편해 목재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활성화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천태학, 불성에 악이 있다는 정의는 틀렸다”

김성철 교수, 불교학연구회 봄논문발표회서 ‘여래성악설’ 논쟁 불붙여

불성에도 악이 있을까? 천태학 교리 중 여래성악설은 ‘불성에도 악도 있다’는 이론이다. 흔히 불심을 이야기 할 때 자비심을 떠올리기에 ‘불성에 악이 있다’는 여래성악설은 중국 천태학 논쟁에 이어 근현대 일본에까지 그동안 학문적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왔다.

이러한 논쟁에 김성철 동국대 교수(사진)가 새롭게 불을 붙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차석 박사가 “성악설이 천태를 대표하는 사상이라고 인정하는 입장에서 있었다”고 밝히며 여래성악설이 중도실상의 세계를 지향하며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3월 28일 동국대 만해관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봄논문발표회에서 “《관음현의》의 ‘여래의 성에 악이 있다’는 일반적 이해와 달리 ‘연인(緣

因)으로서의 불성과 요인(了因)으로서의 불성에 악이 있다’는 이론”이라고 정의했다.

《관음현의》는 천태 지의대사(538~597)가 《묘법연화경》 중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분리해 별도로 강의한 것을 그 제자인 장안 광정(561~632)이 정리한 것이다.

천태 지의대사는 《관음현의》에서 불성을 정인불성(正因佛性)과 요인불성(了因佛性), 연인불성(緣因佛性)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연인과 요인불성에는 선택만 아니라 악도 있음을 밝힌다.

김 교수는 “천태지의가 설한 성악(性惡)은 ‘부처의 성품으로서의 악(惡)’이 아닌 부처의 씨앗인 연인불성과 요인불성 중의 ‘악’이며 세상에 있는 악인과 동시에 성불할 모든 중생이 짓는 보살의 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여래의 성(性)에 있는 악

천태지의의 <관음현의> 정밀 분석

일본학계 성악설 주장 정면 반박

“여래성악설은 여래행악설” 해석

으로 이해하면 지의의 불성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반적인 불성 이론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렇게 해석하면 성악설은 《관음현의》뿐만 《본생담》, 그리고 《유마경》으로 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탐진치의 번뇌와 심불선도의 악행이 모두 여래의 씨앗이라는 《유마경》의 내용에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일본학자들은 여래성악설은 여래용악설(如來用惡說), 여래행악설(如來行惡說)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관음현의》의 독특함은 여래성악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여래용악설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래가 성악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며 이때 성악(性惡)은 ‘세상에 있는 악(惡) 그 자체’ 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천태지의의 여래성악설은 여래용악설(如來用惡說), 여래행악설(如來行惡說)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관음현의》의 독특함은 여래성악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여래용악설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인간의 길흉화복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혼들의 영향력 확인 천도법

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내가영혼을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법. 환자와 가족이 확인

- 1 영가장애를 상담자리에서 영가가 누구인지 확인체험
- 2 영가를 환자의 몸에서 확인가능 (6하원칙에 의한 빙의 경로 확인)
- 3 인체오라장 (생명전기장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빙의 확인 치유과정 확인)
- 4 일반병, 정신병, 영가질환의 구분 (질환의 원인 영가장애 확인)
- 5 보라색과 파란빛, 황금빛으로 영가들이 천도되는 것을 확인
- 6 암, 당뇨, 고혈압,중풍,치매,우울증, 불면증,공황장애, 트라우마, 빙의, 무속병, 환청, 환시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질환의 원인규명 (유전병 치료, 특이성 질환)
- 7 영가들의 수준확인
 - ⇒ 저급영가 - 한과 집착 질병 호소
 - ⇒ 중급영가 - 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돈
 - ⇒ 고급영가 - 내면의 깨달음에 대한 갈망
- 8 신앙생활과 기도를 해도 진도가 없는분 스님, 불자분, 포교원
- 9 기도명상,만트라진언,영언수련을 통한 자신의 영혼과 교감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삶의 가치확립, 영혼의 윤회 과정을 확실히 알

검색 유튜브강의 자각선원


네이버카페 자각선원

자각선원 (인체전기파동의학) ☎ 043)296-5258. 010-9242-525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원봉로 93

대도로 두뇌와 마음을 열어 우주만법을 담아 견성도통 천지공사로 귀신잡는 마장 살생 명부를 천부에 올려 견성도통 령과 혼 영육으로 도인되는 을미년 유불선도통 천인통 입문 대법회

대도는 진법과 스승없는 세울 수 없는 하늘땅 사람에게 감춰진 천부경, 지부경, 인부경, 예단경, 금강진법사구계인 수,육,보,영,진중도, 민족업, 봉천명, 비법은 말과 글, 문자와 참선수행자 종교를 초월 역대선지식님들도 풀지 못 한 진법인 도, 고, 마성인 귀신 장난에 수행자나 스님 및 도인들도 철퇴맞아 병에걸려 수행자의 문전만 남기고 갈길을 가지 못하는 귀신장난인 령과 혼 그리고 영육이 하나로 되는 경신일 자오시에 빛으로 자신을 구하고 병겁을 넘어 비구, 비구니, 보살들도 종교를 초월하여 도통하는 정법안장 마음에 문을 여는 유불선 자오시에 천지개벽은 밖에서 오는것이 아니고 내안에 삼신과 오장육부의 대지진으로 자신을 이겨야 자신의 빛을 보는 천지인신 개벽으로 도인, 신선, 선녀가 되는 의통 능력의 초 신동력을 얻는 천하제일의 도법인 불생불멸하는 무량광자로 일류승승 되소서...? 신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원방각 해인도법의 잣대로 만유를 제도하고 마음의 두뇌를 지배하는 법으로 지구촌 가장 빠른 수행자, 스님, 성직자, 도인들의 성불 도통하는 법은 하늘, 땅, 사람, 자연, 귀신, 바다와 자연이 하나로 되는 날이 육십갑자 인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입문하여 도통하는 것이다.



거부정자로 사는 불마주입자: 태발 02)821-6622 010-3239-3110



한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입 제 일 :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저녁 9시 (필기도구 준비)
- 해 제 일 : 2015년 4월 14일 화요일 저녁 9시 무박 2일
- 동 참 비 : 기도 및 교재비 10만원,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박한영
- 상담전화 : 032)502-6625 / 010-9292-3110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의 3층 용천사 (부평 재래시장입구)

유불선 천지공사 불선도 심경신 도통회 총본산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종정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